중생에 희망 주는 아름다운 말씀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㊷ 〈법화경(法華經)〉 1

〈법화경〉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경전이다.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一切衆生實有佛性), 우린 모두 부처님과 더불어 평등하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는 가르침은 〈화엄경〉에서 52계위의 수행으로 펼쳐진다. 〈법화경〉은 이 정신과 수행이 실행되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 부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낱낱이 "우리 모두는 아무 날 몇 시에 모두 부처를 이룬다"며 수기(예언)를 하여 〈수기(授記)의 경전〉으로 불린다. 아마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불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법화경〉의 본래 이름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으로 한글대장경 제 41책 pp1-260에 수록되어 있다. 경전 제목의 의미은 '무엇보다도 바른 백련과 같은 가르침' 이다. 경전번역자인 축법호(266~313)는 본래 뜻에 따라 〈정법화경(正法華經)〉로, 구마라즙(344~413)은 이정(正)을 묘(妙)로 해석하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으로 번역하였다. 총 7권 28품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삼국유사〉 권3 대산오만진신조(臺山五萬眞身條)에 이 경의 이름이 처음보인 이래로,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에 등장하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며 사랑받고 있는 경전이다.

고려시대에는 사경전문기관인 금자원과 은자원을 설치하여 금과 은으로 사경했다. 바로 감지은니묘법연화경(국보 제234호), 취지금니묘법연화경(보물제 314호)과 백지묵서묘법연화경(국보 제211호)을 비롯하여 단일경전으로는 문화재 등록이 가장 많이 지정되었다. 사경한 경전들을 보면 가슴이 설레고 말할 수 없는 환희심이 솟아난다. 사경한 이의 숭고한 마음이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정교한 글씨의 아름다움에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서사의 공덕이라는 신앙적인 입장, 한 점, 한 획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일자 삼배하는 수행의 입장과 고귀한 재료로 법사리를 장엄하게 공양하는 입장에서 사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부처님이 열반을 앞둔 어느 날, 영취산으로 대중을 다 모이게 하시어 엄중한 말씀을 하신다.

"지난 40년간 그대들에게 한 나의 설법은 사실 성불하는 길을 안내하는 임시방편의 가르침이다. 획기적인 대승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 가르침을 받을 이는 남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는 떠나라, 나는 이제 새로 대승의 가르침, 이타의 가르침을 설하려 한다."

이 말을 들은 대중은 충격으로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 정진하고 성취한 모든 삶을 버리고 새 길을 따라 오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아라한이 되어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비롯하여 모든 수행을 내려 놓아야 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그들은 그동안 이룬 삼승(三乘)의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성제로 수행한 성문승, 연기의 이치를 관찰하는 연각승, 육바라밀을 닦는 보살승까지 목숨을 걸고 수행했었다. 그러다 수행은 했으나 이타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 소승에 비해 대승은 자신들이 이룬 수행 위에 바라밀행을 통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로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는 자리(自利)의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방편, 원, 력, 지혜를 통해 불교의 목적인 이타(利他)의 삶을 통해 중생교화라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제 이들은 40년 동안 이루었던 가치관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기로에 선 것이다. 죽도록 했던 이 수행이 다 불승(佛乘)으로 가기 위한 서막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낙담한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회삼귀일(會三歸一)을 위하여 가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

드디어 비로소 대승불교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 첫 출발점에 대중을 이끈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다. 대승의 길, 바로 일불승의 길이 드디어 열리고 있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부처님 지혜로 미완의 물리 문제 풀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㊶ 과학에 적용하는 금강경

수행 중에 얻어진 이러한 지혜는 수도장을 떠나 사회생활을 하고 학문의 세계에 뛰어들면서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것은 '액체점성(Liquid Viscosity)'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액체점성 연구는 세계적으로 기라성같은 학자들도 모두 풀지 못한 난제이며, 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물리학의 미완성 과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오직 금강경 공부에만 몰두하면서 학문이나 연구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학문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액체점성에 관하여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의논할 사람이 없었고 참고할 문헌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액체점성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 꼴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자연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 획득한 무기, 즉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정성껏 부처님께 바치는 방법입니다.

'액체점성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모르겠다는 생각이 수시로 들 때마다 그 생각에 대고 정성껏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착각이므로 알아질 때까지 바치고 또 바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신기하게도 액체의 점성과 기체의 점성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엮을 수 있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를 수식화할 수 있게 되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액체점성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새로운 논문을 쓸 수 있었고 지도교수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 논문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훌륭한 논문이라며 칭찬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방면의 학자들은 액체의 점성과 기체의 점성은 전혀 다른 매커니즘으로 설명되는 것이고 하나의 일관된 매커니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런 가정을 뒤집고 액체의 점성과 기체의 점성을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점성의 이상(異常)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획기적 논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 과정에서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정성껏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자연과학에서도 난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른다는 사실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이 가르침을 프로그램화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면 모르는 사람, 즉 둔재를 영재로 만들어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은 일체유심조, 공(空), 불이(不二), 구족(具足)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강경 제 3분, 제 4분, 제 5분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경속에는 부처님의 법식, 도인의 법식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런 금강경은 근기가 높은 잘 닦은 사람들만 공부할 수 있는 경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을 비롯한 그 누구도 이 금강경을 공부함으로써 밝아질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금강경 속의 부처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빈곤한 삶이 풍요의 삶으로,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무지의 삶이 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고달프고 어려운 이 세상이 즐겁고 희망에 찬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의 고유영역인 자연과학의 난제에도 적용이 되어 우주의 비밀을 풀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제일구(第一句)와 '이 뭣고'

조주(趙州) 선사께서 하루는 임제사(臨濟寺)를 방문해 발을 씻고 있을 때, 임제 선사께서 다가와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서 오신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마침 노승이 발을 씻고 있는 중이니라"라고 답하였다.

이에 임제 선사께서 조주 스님에게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척 하니, 선사께서 "알면 바로 알 것이지 되새김질 해서 무엇 하려는고"라고 하자, 임제 스님은 팔을 흔들며 돌아 셨다.

제일구(第一句)서 깨치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라 했고, 제이구(第二句)서 터득하면 인천(人天)의 스승이라고 하였다. 듣고 바로 깨치면 제일구이며, 귀 귀울여 되새김질하면 제이구이다.

임제 선사가 하루는 발우를 갖고 탁발을 나갔는데, 한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탁발 왔다고 하니까, 노보살이 대문을 열고 나오며 임제 선사에게 "염치 없는 중이로고"라고 쏘아 붙이고 시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제 선사가 "탁발하러 왔는데 어째서 한 푼도 주지 않고 염치없는 중이라고 하는고" 물으니, 그 보살이 대문을 확 닫고는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머쓱해진 임제 선사도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임제 노장이 노파에게 허물을 보임으로써 그 노파의 빗장 관(關)의 '할'에 임제의 귀를 꽉 먹어 버리게 하고, 누구나 자성 안에 가득찬 천연무가보주(天然無價寶珠)의 문을 활짝 열어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임제 선사를 꼼짝 못하게 한 할망구의 제일 구이며, 그 유명한 임제탁발화(臨濟托鉢話)이다.

당나라 때 위산 선사에게 향엄(香嚴)과 앙산(仰山) 두 제자가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는데, 하루는 앙산 스님이 문안 드리자 위산 선사는 벽을 향해 돌아누우며 말하길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대가 나를 위해 해몽 해보게나"라고 했다. 그러자 앙산 스님이 즉시 밖에 나가 세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위산 스님 앞에 놓고 나갔다. 그 다음에 향엄 스님이 문안 드리자 앙산 스님과 똑같은 말을 하니, 스님은 즉시 밖에 나가서 정성껏 차(茶)를 달여와 바쳤다. 그러자 위산 선사는 "내 두 제자의 신통(神通)이 목련존자(木蓮尊者)를 지나가는 구나" 라고 하며 크게 칭찬했다.

생사(生死)서 벗어난 꿈을 깬 진여실상에서는 억지로 꾸미지 않는 순수한 평상심(平常心)이 지극한 도(道)이며, 그 행선(行禪)이 바로 '이 뭣고' 인 것이다.

다음은 용성 선사와 전강 선사의 전신구(轉身口) 법거량이다.

전강: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용성: 영신아!

전강: 예

용성: 제일구를 일러 마쳤느니라.

전강: 허허(박장대소)

용성: 자네가 전신(轉身)을 못했네.

전강: 전신구를 물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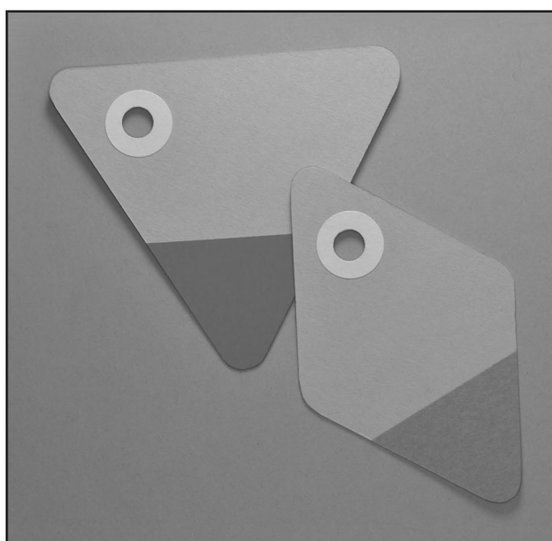
용성: 여하시 전신구인고?

전강: 낙하여고목제비(落霞與孤鶩齊飛)하고 추수공장천일색(秋水共長天一色)입니다.

전강 스님이 "저녁 노을은 따오기와 더불어 날고 가을 물은 하늘과 함께 일색입니다"라고 하니, 용성스님이 아무 말 없이 방장실로 돌아갔다.

이환즉각(離幻卽覺)이라는 말처럼, 꿈을 여읜 제일구서 진성과 하나된 깨달은 경지를 보여 준 것이다.

오조 홍인 선사가 이르길 "무상보리(無上菩提)는 모름지기 언하(言下)에 제 본심을 알고 불생불멸하는 제 본성품을 보아서 언제나 만법에 막힘이 없으며, 일진(一眞)이 일체진(一切眞)이라 만경(萬境)이 스스로 여여하니 그 마음이 즉시(卽時) 진실(眞實)이니, 만약 이와같이 보면 곧 이것이 무상보리(無上菩提)의 자성(自性)"이라 했다. 그러니 만법이 모두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알고 자기 마음 속에서 진여 자성을 본다면 이 제일구 듣는 언하에 대오(大悟)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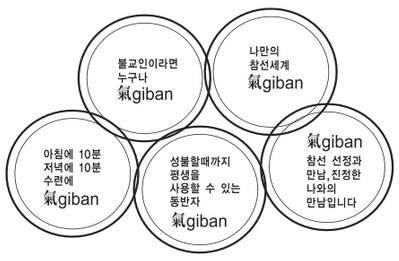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